"지혜로운 자의 참 지혜와 복" (전도서 인생론 시리즈 16)

(전도서 9:13-18)

지혜와 지식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재주가 있는 한 무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을 출판하고 싶어 출판사에 자신의 글을 투고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당신의 글을 출판할 수 없습니다'라는 결정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편집장이 출판할 수 없는 이유를 메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당신의 글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출판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당신의 쓴 글이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무명인이기에 출판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됩니다.' 출판사 편집장의 솔직한 표현이었습니다. 글이 어떠한가의 문제보다 글쓴이가 유명한가 아니한가에 따라 책이 판매되어 이윤이 되는가 아닌가로 결정이 되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무명인의 책의 내용이 유명인의 책의 내용이 좋다 할지라도 일단 사람들은 유명의 책을 더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선입견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소중함을 알아주지 않는 불공평한 세상의 편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공평한 현실과 세상 속에서 오늘 코헬렛인 전도자는 어떤 지혜로 그 지혜가 더 빛이 나고 축복이 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살았던 한 가난한 지혜로운 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성읍을 점령하기 위해 쳐들어온 힘과 군사 세력이 막강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성읍에 살고 있었던 가난한 한 지혜자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지나자, 사람들은 그가 가난하고 외모적으로 워낙 볼품이 없어 그를 가엾하는 자도 없고 나중에는 그 지혜만 저 사람들로 무시와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14-16절). 중요한 핵심은 만약 내가 그 가난한 지혜자였다면 이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며 또한 어떤 자세로 살아갔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이 대답에 따라, 남은 생애를 상처와 아린 가슴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지혜의 더 큰 지혜로 말미암아 더 축복을 얻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의 지혜로운 선택과 생각 그리고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읍을 지켜내는 것보다 나의 남은 생애의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지혜의 답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어떤 칭찬과 인정을 바라지도 말고 포기를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성경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인지라 나의 애쓴 공로와 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기억도 해 주지 않을 때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복음서를 통해서도 늘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칭찬과 상급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상을 이 땅에서 당연히 받기 위해 조건적으로 애쓰고 힘쓰며 받는 칭찬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눅 6:32-34).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의를 행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저들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라고 천국에서는 아무 상도 인정도 준비가 되지 않을 인생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사울(가장 큰 자)'이란 이름으로 열심히 달려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바울(가장 작은 자)'이 되어서 오직 하늘에 준비된 상급만을 위해 겸허히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로부터 온갖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취급을 이 땅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의 지혜로 온 세상을 구원하였어도 지금도 사람들은 그를 무시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뉴장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민 생활과 신앙생활이 나의 존재를 인정해 줌이 중요하다고 해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성읍의 가난한 지혜자와 같이 전도자가 인정해 주고 오직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주님의 지혜를 닮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복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2025년 표어

"사랑으로 함께 일어서는 능력의 공동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한복음 15:12)

사랑의 5대 강령: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다음세대 사랑, 서로 사랑, 영혼 사랑

일반집회		교회학교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시	오전 예배부	주일 오전 10시
드림 워십	주일 오전 8시	영아부	주일 오후 12시
글로리 워십	주일 오전 10시	유아부	주일 오후 12시
블레싱 워십	주일 오후 12시	유치부	주일 오후 12시
청년예배	주일 오후 12시	초등부	주일 오후 12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시	중고등부	주일 오후 12시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시	러브미션부	주일 오후 12시
수요중보기도회	수요일 저녁 8시	새나라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유 아 부	최수진 사모 (917)526-1344	1, 2선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유 치 부		청2선교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초 등 부	최주안 전도사 (646)662-0691	3 선 교 회	최순성 목사 (917)246-9493
중 고 등 부	손주영 전도사 (917)797-4237	4 선 교 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러 브 미 션	박명애 전도사 (718)737-1643	5,6선교회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청 년 부	김성준 목사 (617)949-1118	히 스 패 닉	이효성 목사 (646)549-6043
영 어 회 중	폴 김 목사 (201)679-2924	네 팔	다니엘 바스넷 목사 (201)927-0220
행 정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몽 골	티모시 투글들 목사 (646)467-2675
양 육	최순성 목사 (917)246-9493	다민족사역	양영란 전도사 (917)533-9511
새 가 족 부	최순성 목사(정) 박수진 전도사(부)	시니어사역	이재환 목사 (646)398-0228
심 방 부	박수진 전도사 (646)642-9331		

단비 기독교TV(타임워너 케이블 채널1487)/ 매주 금요일 저녁 9시(본방송)
토요일 오전 11시(재방송)

2025년 3월 9일

1부 예배 8:00am

드림 워십
인도: 이재환 목사

*경배와 찬양 Worship Song	두나미스 찬양팀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제10번 "시편(Psalms) 16편"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Creed'
찬송 Hymn	새9장(통53)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Heaven is Full of Your Glory'
기도 Prayer	김선신 장로 (Elder Sun Shin Kim)
성경봉독 Scripture	전도서(Ecclesiastes) 10:1-4
*봉헌 Offering	새213장(통348)"나의 생명 드리니"(1,4절) 'Take My Life, and Let It Be'
찬양 Anthem	글로리아 찬양대 "평화의 기도"
설교 Preaching	**"반드시 더 나아질 수 있는 인생의 지혜"** Wisdom to Enhance One's Life (전도서 인생론 시리즈 17) 김학진 목사
*찬송 Hymn	새490장(통542) "주여 지난밤 내 꿈에" 'There's a Dream That I Dream'
*축도 Benediction	김학진 목사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s	

2부 예배 10:00am

글로리 워십
인도: 최순성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경배와 찬양	블레싱 찬양팀
기도	이세화 집사
공동체 소식	영상
성경봉독	마태복음 14:22~33
*봉헌	"나 무엇과도 주님을"
설교	**"고난을 잘 통과하는 믿음"** 김학진 목사
찬양	"You Raise Me Up (내 영혼 지치고)"
축도	김학진 목사

3부 예배 12:00pm

블레싱 워십
인도: 김성준 목사

(* 표는 가능하면 일어나심 / Stand if able)